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예술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제2회 KAC청소년 단편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버킷리스트 - 5일간의 이야기
수상내역	은상
작가	김성우
공모분야	시나리오
시놉시스	저승사자에게 5일 후의 죽음을 선고받는 호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해간다.

버킷리스트- 5일간의 이야기.

S#1. 호준네 집안 서고(저녁) → (새벽)

불이 꺼져있는 서고의 전체 샷으로 보여주며 천천히 페이드인, 문이 조용히 열리고 노인이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켜다. 검은색 정장을 벗고 테이블 의자에 걸쳐둔 간편한 복장으로 갈아입는 노인의 모습, 책장에 꽂아져있는 책 중 한 권을 꺼내들고 의자에 앉아 책장을 넘긴다. 가려진 커튼 뒤로 황혼에서 은은한 달빛으로 서서히 변한다.

호준: (책을 덮고 시계를 쳐다보며) 은제 시간이 이렇게 되어부렀데.

스위치를 눌러 불을 끄고 나가려는 호준, 그때 그의 뒤에 저승사자가 나타난다.

저승사자: 저기요...

호준: (으스스한 느낌에 뒤를 돌아본다) ...!

다시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켜 서고의 내부를 둘러본다.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다.

호준: (머리를 긁적이며) 허어.. 이젠 노망까지 났나보구마잉..

불을 끄고 서고문을 닫히면 거실로 와이프된다.

S#2. 호준네 거실. /새벽

호준이 서고문을 닫고 현관문 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저승사자와 눈이 마주친다. 눈꼬리를 살짝 울리며 웃는 저승사자의 모습, 호준은 자신의 불을 강하게 잡아당긴다. 아프다.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을 하다 손에 서고 문고리가 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쾅! 소리가 나도록 닫는다.

S#3. 서고입구

문에 기댄 채 눈을 질끈 감고 있는 호준.

호준: (가슴에 손을 얹으며) 후... 내가 뭘 본것이었어...

호준이 눈을 뜨자 눈앞에 저승사자가 서있다.

저승사자: (눈웃음을 지으며) 나 왔어요~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린 호준과 그런 모습을 보고 쩡그리며 이마에 손을 얹는 저승사자.

저승사자: 할아버지. 놀래켜서 미안미안, 장난 좀 치고 싶었어요.

호준: (저승사자를 멍하니 보며) 처. 처녀귀신...

저승사자: (산발된 머리를 올리며) 저승사자거든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그나저나 할아버지, 축복받으셨네요.

호준: (멍한 모습으로) ...?

저승사자: 5일 뒤 죽음을 축하드립니다.

호준: (정신을 차리고) 뭘... 소리를 하는 것이여. 죽음이라니, 죽는다고?

저승사자: (웃으며) 뭘 새삼스럽게 그래요. (짜늘한 표정으로) 곧 죽을거라는거 대충 알고 있었을 텐데.

두 사람이 있는 서고 전체를 보여주며 페이드아웃.

#### S#4. 병원 복도(점심)

하얀 가운을 입은 채 로비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있는 호준, 한손에 손수건을 꼭 쥐고 있는 채 초초하게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간호사 (차트를 한번 보고) 김호준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김호준 할아버지~

호준: (엇겨주춤 손을 들며) 예... 예! 가요(잉)!

#### S#5. 진료실 안

책상에 놓여있는 차트를 넘겨보는 의사양반과 앞에 놓여진 의자에 앉아있는 호준.

호준: (불안한 표정으로) 의사양반 워때(어때유)?

의사: (차트 넘겨보며)... (호준을 쳐다보고) 마음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의 정적, 한참 있다가 입을 떼는 호준.

호준: (힘겹게) 얼마나 남은겨.

의사: (두 손을 깎지 끼며) 죄송합니다.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환자 석에서 일어나다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것을 잡아주는 간호사를 뿌리치고 문을 여는 호준의 뒷모습에서 디졸브.

S#6. 집 근처 식당 (낮)

종업원이 테이블 위에 라면 한 그릇과 김밥 한 줄을 올려둔다.

가만히 음식을 쳐다보다 김밥 하나를 라면국물에 찍어 먹는 호준의 모습, 호준이 라면을 먹다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한다.

<문자 메시지>

저희 급한 일이 생겨서 내려가기로 했던 거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

문자를 확인한 호준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김밥을 집어 들고 먹는다.

S#7. 낙안읍성 주차장 / (낮)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나오는 호준. 눈이 부신지 한손으로 햇빛을 가린다.

호준: 햇빛도 짹짹하구먼! 날짜 하나는 참 잘 고른단 말이여. (문을 닫으며) 자식 놈들이 그렇지 뭐.

호준이 낙안읍성의 입구를 통과하면 성벽 위로 화면이 이동한다.

S#8. 낙안읍성 성벽 (황혼) /인터넷

-1- 성벽에 나있는 길을 따라 걸으며 경치를 감상하는 호준. -2- 성벽에 기대어 선 선한 바람을 느끼는 호준. -3- 목에 폴라로이드를 걸고 있는 행인1, 호준을 발견하고 그에게 곧바로 다가간다.

행인1: 저, 어르신.

호준: (눈을 뜨고) ...

행인1: 팬찮으시면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나 해서요.

호준: 뭐 그 정도야.

행인1: (폴라로이드를 건네며) 저랑 풍경도 다 나오게 찍어주세요.

호준: (건네받은 폴라로이드를 이리저리 쳐다보며) 어찌 쓰는 거?

행인1: (이것저것 누르며) 여기로 보시면 되시구요. 이걸 눌러주시면 (현상된 사진을 들며) 이렇게 사진이 찍혀서 나와요.

호준: 이걸 누르면 된단 말이제잉?

행인1: (자리를 잡으며) 셋에 찍어주세요~

폴라로이드 거울에 행인1의 모습이 비추어지지 않는다.

호준:(당황하며) ...?

행인1: 어르신~!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호준:(에라 모르겠다는 듯이) 하나~ 둘 셋! 김치~

폴라로이드의 플래시가 터지고 인화된 사진을 받아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받은 사진을 붙이고 맨 앞장에 줄을 긋는 행인1.

호준:(행인의 행동을 보며) 그건 뭐시여?

행인1: 네?

호준: 자네가 들고 있는 수첩말여 아까 본께 문장에 줄을 긋던디.

행인1: 아 버킷리스트요?

호준: 버킷리스트?

행인1:(수첩의 맨 앞장을 보여주며) 이거 말이지요? 버킷리스트라고 쉽게 말해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목록을 적은거예요. 저희 교수님이 별나서 개인과제로 내주신건데 ...

그때 호준의 주머니에서 벨이 울린다.

호준: 미안혀 조금만 기다려봐잉. (뒤돌아서서) 여보씨요.

호준친구:(E) 뭐하쇼 술이나 한잔. 어때?

호준: 뭔일이여 거 쯤만 기다리보쇼잉, (시계를 쳐다보고) 어디로 가든 되요잉?

호준친구:(E) 위치는 찍어줄텐께 후딱 터오쇼.

호준: 어야~ 이따 보게잉 (통화를 끊고 뒤돌아서며) 아 미안혀...

사라져버린 행인의 행적에 머리를 굵적굵적 거리다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성벽을 내려간다. 호준이 있던 자리에 천천히 걸어오는 행인1, 쓰고 있던 캡 모자를 벗는다. 머리가 바람에 휘날리고, 저승사자의 얼굴이 보이며, 페이드아웃.

#### S#9. 서고 / (낮)

페이드인. 테이블의자에 앉아 수첩에 무언가 열심히 적고 있는 호준, 문을 열고 나간다. 서고 전체를 보여주고, 테이블 위를 근접 샷으로 촬영한다. 테이블위에 놓여있는 수첩을 들어 올리는 얇은 손. 곧이어 한손에 물 컵을 들고 서고의 문을 열고 들어온 호준, 테이블위에 수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당혹한 표정을 지으며 서고 곳곳을 뒤지기 시작한다.

호준: (머리를 굵적이며) 아 어디있는겨?

저승사자:(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온천에 가서 폭 쉬기, 라마 사파리 만년필 한정판을 구매해서 컬렉션 완성하기, 야간산행 해보기, 마누라 보러가기...

호준이 뒤를 돌아보자 저승사자가 테이블의자에 앉고 두 다리를 테이블위에 올린 채 수첩을 쳐다보고 있다.

저승사자: (호준을 쳐다보며) 버킷리스트 작성하고 있었나보네요? 너무 소박한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뭐, 당신마음이니까. 오늘 지나면 5일 남았어요. 즐거운 하직 준비하시

테이블의자에서 일어나 호준의 옆을 지나가며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그에게 던진다. 반사적으로 받아내는 호준, 눈웃음을 지어보이곤 서고의 문을 열고 나가는 저승사자, 호준의 시점으로 받아낸 수첩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천천히 페이드아웃.

#### S#10. 보육원 앞 /아침

페이드인. 골목길로 차량 한 대가 들어오고, <미소 보육원> 앞에서 멈춘다. 운전석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호준, 한쪽 손에 하얀 봉지가 들려져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중앙에선 남자아이들이 축구를, 한쪽 놀이터에 여자아이들이 웅기종기 모여앉아 소꿉놀이를 하고 있다. 축구공이 호준에게 굴러간다.

남자아이1: (큰소리로) 저기요~! 공좀 던져주..... 할아버지~!

호준, 웃으며 들고 있던 하얀 봉투를 들어 올려 보인다.

#### S#11. 보육원, 등나무 쉼터

호준과 보육원 아이들이 하드를 하나씩 입에 물고 있다. 하드를 다 먹은 여자아이가 말을 꺼낸다.

여자아이1: (깔깔 웃으며) 동우가요~ 저번에~ 자다가 오줌 지렸데요!

여자아이2: (여자아이1에 말에 맞장구치며) 지려가지고 울었대~요

남자아이1: (발끈하며) 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할아버지 저거 거짓말인거 알죠?

호준: (남자아이1의 등을 토닥거리며) 괜찮어. 그럴 수 있는 거지 사내아이가 뭘 그것가지고...

남자아이1: (몸을 떨며) 진짜 아니라고요!

호준: 당연하지 동우가 나이가 몇이나 묵었는디...

#### S#12. 온천 /낮

야외 온천탕 안에서 경치를 즐기는 호준의 모습, 자막으로 4일이 깔린다. 호준이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쳐다보자 시계가 확대되며 사무용품 매장으로 와이프된다.

#### S#13. 사무용품 매장 안 / (낮)

사무용품 사장:(호준에게 만년필을 건네며)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역시 물건은 물건이더군요,

호준:(받은 만년필을 둘러보며) 한번 써봐도 되요잉?

사무용품 사장: 그럼요. 이제 고객님의 물건입니다. (종이를 가져오며) 어서 써보십시오. 죽여줍니다.

종이에 시필을 해보는 호준, 좋은 필기감에 사장의 얼굴을 보며 웃는다.

#### S#14. 화장실 / 낮

화장실 거울을 쳐다보며 무언가를 하고 있는 호준의 모습, 어깨너머 거울에 정장에 방금 산 만년필을 정장의 앞주머니에 꽂고 있다. 싱글벙글 웃으며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호준의 모습.

#### S#15. 커피숍 / 낮

아래층에서 아이스커피를 받아 올라온 호준은 창가에 위치한 테이블에 조심스레 앉는다.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다 젊은 남성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호준.

남성2:(남성1을 쳐다보며) 야 우리끼리 캠핑가보는게 얼마만이냐?

남성1:(벽을 쳐다보며) 한 2년만인가? 그럴걸.

호준:(속으로) 캠핑?

남성2: 거기 물종지?

남성1:(남성2를 쳐다보며) 야 내가 거기 지난주에도 다녀왔는데 죽여줘~ 쪽쪽~ 크~

남성2: 오오~! 그럼 그때처럼 콜?

남성1: 콜!

남성1,2가 테이블에서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쳐다보는 호준,

호준:(속으로) 캠핑이라...

시계를 잠깐 보더니 정장 앞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캠핑하며 라면 끓여먹기’를 적고 다시 정장에 넣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디졸브.

#### S#16. 캠핑장입구 / 저녁

그날 저녁, 캠핑장에 도착한 호준, 텐트를 치는 젊은 층의 모습과 캠핑카 앞마당에서 고기를 굽는 모습들을 보며 빙그레 웃는다.

종업원:(호준에게 다가가) 할아버지, 뭐 찾으시는 것 있으신가요?

호준: (당황하며) 아, 아니.. 음, 여기 혼자서 숙영이 됩니까잉?

종업원1: 당연하죠! 할아버지. 텐트 빌려드릴까요? 아니면 캠핑카로 빌려드릴까요? 조

리기구도 빌리실 수 있습니다.

호준: 캠핑카가 어떤 거요?

종업원:(캠핑카를 가리키며) 저~기 하얀색 차량보이지죠? 저게 캠핑카예요. 아늑하고, 또...

호준:(종업원의 말을 끊으며) 뭣이 더 캠핑분위기에 어울린가?

종업원1: 분위기라면 역시 텐트죠. 모기들 사이에서 잠을 청하는 그것이란... 크~

호준: (카드를 건네며) 거 텐트 1인용하고 냄비랑 불 피우는 것 좀 부탁드립니다요잉.

텐트를 가지고 끙끙거리는 호준의 모습, 지나가던 종업원2의 도움으로 텐트를 완성시키고, 정장 속에서 수첩을 꺼내어 ‘캠핑하며 라면 끓여먹기’ 라는 목록에 줄을 긋는다. 그 위로 ‘라마 사과리 한정판 구매하기’ ‘혼자서 온천 다녀오기’에도 줄이 그어져 있다.

#### S#17. 야영장/ 저녁

불붙인 버너위에 올려진 코펠에서 끓고 있는 라면, 젓가락이 면발을 건져 올려 입속으로 들어간다. 맛있게 먹는 호준, 몇 번더 젓가락하다 시끌시끌한 옆 캠핑카를 쳐다본다. 서로 먹여주며 웃음꽃을 피우는 노부부와 자식들의 모습.

호준:(부러운 듯이) ...

고개를 돌려 입을 막고 기침을 하는 호준, 손에 선홍색 혈액이 묻어있다.

호준:(혈액을 보고) ...

손수건으로 손을 닦고는 다시 라면을 먹기 시작하는 호준, 캠핑카에 앉아 그 모습을 쳐다보던 저승사자,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다.

#### S#18. 야영장/밤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텐트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 호준,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데 저승사자의 얼굴이 보인다.

호준:(놀란 모습으로) ...!

저승사자:(고쳐 앉으며) 몇 번이나 봤으면서 뭘 그리 놀래요?

호준:(경계하면서) 또 뭣이여 또...

저승사자: 이런 캠핑장에는 가족들이랑 와야지.. 앞으로 자식들 볼 수도 없는데... 안 그래요?

호준: (잠깐 뜸을 들이고)... 혼자만의 캠핑이 꿈이었으께.



저승사자:(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저승사자가 이런 호의 베푸는 거 얼마 없어요.  
 저승사자가 텐트를 빠져나가고 호준은 누운 채 침낭의 지퍼를 잠근다.  
 오른쪽 텐트 면에서 불쑥 얼굴을 내미는 저승사자.

저승사자:(웃으며) 3일 남았답니다.

S#19. 지리산 노고단 주차장 /새벽  
 등산로 지도를 확인하고 랜턴에 불을 켜 작동을 확인하는 호준, 산을 오르기 시작한  
 다.

S#20. 지리산 산길 / 동이 틀 무렵.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호준, 점점 숨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발을 헛딛는다.

호준:(뒤로 넘어지며) 악!

누군가 넘어지는 호준을 잡아준다.

저승사자:(손을 잡으며) 할아버지, 벌써 가시려고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아직 시간  
 남았어요.

호준:(떨뚱떨뚱 쳐다보며) ...

S#21.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 안./아침  
 보온병에서 뜨끈한 물을 따라 마시는 호준과 그런 모습을 쳐다보는 저승사자.  
 바지 호준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무언가 뺀히 쳐다보는 호준.

저승사자:(호준을 쳐다보며) 뭘 그리 뺀히 쳐다봐요?

호준:(무시한 채)...

저승사자:(지갑을 뺏어 쳐다보며) 뭐야, 자식들이랑 배우자인가보네요. (돌려주며) 이  
 제야 슬슬 이별이 실감나나보군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족들이랑 이별 준비하라고 시  
 간 마련해주는건데 왜 혼자 돌아다니는거예요?

호준이 고개를 돌려 기침을 한다. 전보다 더 많은 양의 혈액이 묻어있는 손수건, 뺀  
 히 쳐다본다.

호준: (손수건을 쳐다보며) 다윗의 진화론을 아는가. 만물은 시(세)상에 맞게 진화를  
 해왔다는 학설 말일세.

저승사자: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그 할아버지 정말 유쾌...

호준: (저승사자의 말을 끊으며) 반대로 싱(생)각해보면, 진화하지 못한 자들은 죽음뿐이었다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네. 당신이 언제부터 저승사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십 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했고, 사람들 또한 바빠 움직여야 했지.

저승사자:(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호준:(저승사자를 쳐다보며) 세상은 점점 빠르게 흘러가고, 거기에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기가 지금이라네. (가방을 싸며) 자기 밥그릇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시기인데 나 같은 노인네들을 챙길 시간이 나겠나. 갈 때가 되면 조용히 가주는 것, 그것이 아들(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하산을 할 준비를 끝낸 호준은 대피소를 나가고, 대피소에는 저승사자만이 남아있는 모습이 화면에 비치고, 천천히 페이드아웃.

#### S#22 서고/아침

페이드인. 아무도 없는 서고, 테이블 위에 큼지막한 사진첩들이 올려져있고, 테이블의 자에 누군가 앉아있다.

#### S#23. 호준의 집/점심

집에 도착해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부엌서 늦은 점심을 먹는 호준. 전시해둔 액자들 사이에 놓인 자신과 배우자의 모습이 담긴 액자가 보인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에서 <배고파요~ 메시진데 속았지?> 라는 알람 음이 울린다. 문자를 확인하는 호준.

#### <문자 메시지>

아버지, 어머니 불공드리러 내일 아침에 도착할거 같습니다. 불공드리고 지난번 못간 거 같이 가요. 내일 뵙겠습니다. -아들-

호준:(액자를 보고) 위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당가...

호준의 모습에서 점차 멀어지며 부엌 전체 샷에서 디졸브.

#### S#24. 절/낮

대사의 목탁소리에 맞춰 절을 하는 호준의 모습. -2- 서고, 테이블 위에 큼지막한 사진첩들이 올려져있고 테이블의자에 누군가 앉아있는 모습.

#### S#25. 서고/밤

서고의 문이 열리고, 호준이 등장한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책장을 훑기 시작하는 호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수첩을 발견한다. 수첩을 집어 들어 표지를 넘기자 줄

이 잔뜩 그어진 버킷리스트가 보인다.

호준:(피식 웃으며) ...

다음 장을 넘기자 하나의 글귀가 보인다. ‘그녀와의 추억을 기리며’ 그 다음 장을 넘기자 흑백사진이 하나 붙여져있다. 그리고 그 밑에 쓰여진 글귀, ‘처음 만난 날’그와 동시에 사방이 어두워지고, 곱디 고왔던 배우자의 모습이 보인다.

호준:(손을 뺄으며) 은희야....

그녀의 모습이 어둠 뒤로 사라지고, 자신의 생일날을 위해 미역국을 끓이는 모습이, 어린 아들이 자신 옆에서 목마를 태워달라며 조르는 모습이, 아들과 며느리가 한복을 곱게 입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 손녀가 자신 앞에서 한 바퀴를 돌며 어떤지 묻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하나같이 대답을 하려 하거나 다가가려고만 하면 사라진다.

호준:...

마지막으로 저승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난다. 가만히 쳐다보는 호준,

저승사자: 괜찮았어요?

호준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살짝 웃는다.

저승사자:(호준에게 손을 뺄며) 다음 생엔 행복하시길...

손을 맞잡는 호준과 저승사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천천히 페이드아웃.

S#26. 서고/아침

아침 햇살이 가득 채운 서고 전체를 보여주며 페이드인, 호준이 테이블에 앉혀져있다. 테이블 위에는 펼쳐져있는 수첩과 막내아들네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노인의 안경이 올려져있다. 수첩의 종이에 D-day라는 자막이 나오고 서고 전체를 보여준다.

-ending-